

‘치명적 견제구’ 주목되는 박지원의 입

이번엔 ‘박근혜 주변 수구꼴통 7인회’ 발언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부산지역을 제기한데 이어 이번에는 ‘7인회’ 카드를 꺼내들어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장을 공격, 주목을 끌고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7일 제주 일시 대의원대회 인사말에서 “최근 보도에 의하면 새누리당 박 전 비대위원장에게는 수구꼴통 7인회가 있어서 박 전 비대위원장장을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20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지역 지도부 선선에서도 “박 전 위원장에게 7인회가 있다고하는데 그 면면을 보면 수구꼴통이어서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6인회가 있었다”면서 “이 대통령을 만든 여성 사람이 결국 반은

감옥에 갔고, 나라를 망쳤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박 전 위원장이 부산지역을 제기한데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장을 공격, 주목을 끌고있다.

박 위원장이 언급한 ‘7인회’는 박 전 위원장을 둘고 있는 원로그룹을 지칭한다. 김용환 전 자민련 부총재를 비롯해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김용갑·현경대 전 의원, 김기춘 전 법무장관, 강창희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 등이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각종 정국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뒤 박 전 위원장에게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희 대통령 때 재무부 장관을 지낸 김 전 부총재는 박 전 위원장과 오랜 인연이 있고, 김용갑·현경대 전

의원과 강 당선자는 친박계 종족으로 분류된다. 안 전 부사장은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때 공동선대위원회장을 맡았었다.

이에 대해 박 전 위원장 측은 “박 전 위원장은 많은 그룹과 개인으로부터 자문을 하고 있다”면서 “그중의 하나인 원로그룹이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7인회 관계자도 “정치 현장에서 밤을 빼 월로들의 사적인 친목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7인회의 구성원 면면이 박 전 위원장을 앞으로도 계속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줄기찬 공격으로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박 전 위원장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가랑비에 옷 젖는 전략’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의 6인회가 집권 후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현재는 각종 비리 등으로 대거 물러난 점도 당내 비판을 거두고 한 원인이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박 위원장이 7인회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MB 6인회’의 말로가 좋지 않았던 것처럼, ‘박근혜의 7인회’도 박 전 위원장이 집권할 경우 전횡을 일삼을 것이라는 점을 은연 중에 부각시킨 것이다. 미리 흥집을 내서 박 전 위원장의 대권 행보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누구보다 정보력이 뛰어난 박 위원장이 새누리당 박 전 위원장을 앞으로도 계속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줄기찬 공격으로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박 전 위원장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가랑비에 옷 젖는 전략’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박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권주자들의 합장

28일 서울 경지동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표,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정치인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진보 이석기·김재연 제명 ‘첩첩산중’

정당법 걸림돌…당기위, 서울시당서 징계 심의 결정

통합진보당 혁신파가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의 제명(출당)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지만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당소속 의원과 반수가 찬성해야 한다는 정당법 규정이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파가 절차를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두 당선자가 의원 신분이 되

는 이달 30일까지 제명 절차를 완료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당선자가 의원 신분이 되면 제명 절차가 복잡해진다. 당내 규정과 별개로 정당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당권파들이 이런 상황을 활용해 제명을 방해하며 다음 달 말 당대표 선거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 것이라는

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소속 국회 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기위가 제명을 의결하더라도 통진당 ‘의원’ 13명 중 7명이 제명에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현재 당권파는 6명, 혁신파는 5명이다.

당권파들이 이런 상황을 활용해 제명을 방해하며 다음 달 말 당대표 선거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 것이라는

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소속 국회 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기위가 제명을 의결하더라도 통진당 ‘의원’ 13명 중 7명이 제명에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현재 당권파는 6명, 혁신파는 5명이다.

당권파들이 이런 상황을 활용해 제명을 방해하며 다음 달 말 당대표 선

거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 것이라는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관측이 많다. 오병윤 당선자를 당대표로, 김선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내세워 당권을 재탈환한 뒤 제명을 포함한 당 혁신을 무산시키려 한다는 것.

통진당 중앙 당기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제명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당에서 경기도당으로 당적을 옮긴 두 당선자의 징계 심의를 서울시 당기위에서 담당하도록 결정했다.

또, 서울시 당기위는 위원(7명) 전원이 혁신파에서 제명 결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문제는 정당법 조항인 셈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소속 국회 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기위가 제명을 의결하더라도 통진당 ‘의원’ 13명 중 7명이 제명에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현재 당권파는 6명, 혁신파는 5명이다.

당권파들이 이런 상황을 활용해 제명을 방해하며 다음 달 말 당대표 선

거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 것이라는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소속 국회 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기위가 제명을 의결하더라도 통진당 ‘의원’ 13명 중 7명이 제명에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현재 당권파는 6명, 혁신파는 5명이다.

당권파들이 이런 상황을 활용해 제명을 방해하며 다음 달 말 당대표 선

거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 것이라는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소속 국회 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기위가 제명을 의결하더라도 통진당 ‘의원’ 13명 중 7명이 제명에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현재 당권파는 6명, 혁신파는 5명이다.

당권파들이 이런 상황을 활용해 제명을 방해하며 다음 달 말 당대표 선

거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 것이라는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소속 국회 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기위가 제명을 의결하더라도 통진당 ‘의원’ 13명 중 7명이 제명에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현재 당권파는 6명, 혁신파는 5명이다.

당권파들이 이런 상황을 활용해 제명을 방해하며 다음 달 말 당대표 선

거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 것이라는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소속 국회 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기위가 제명을 의결하더라도 통진당 ‘의원’ 13명 중 7명이 제명에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현재 당권파는 6명, 혁신파는 5명이다.

당권파들이 이런 상황을 활용해 제명을 방해하며 다음 달 말 당대표 선

거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 것이라는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소속 국회 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기위가 제명을 의결하더라도 통진당 ‘의원’ 13명 중 7명이 제명에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현재 당권파는 6명, 혁신파는 5명이다.

당권파들이 이런 상황을 활용해 제명을 방해하며 다음 달 말 당대표 선

거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 것이라는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소속 국회 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기위가 제명을 의결하더라도 통진당 ‘의원’ 13명 중 7명이 제명에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현재 당권파는 6명, 혁신파는 5명이다.

당권파들이 이런 상황을 활용해 제명을 방해하며 다음 달 말 당대표 선

거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 것이라는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전남 ‘제2의 노풍’ 부나

손학규·김두관·문재인·안철수 등 지지모임 활발…대권주자 분위기 띄우기

오는 12월 치러질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서 유력 대권후보들의 지지모임이 활발한 펜클럽 ‘손학규와 함께하는 사람들’·민심산 악회’가 대표적인 지지모임이다.

‘리를 노무현’으로 불리는 김두관 경남지사의 지지모임은 최근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28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난 4·11 총선 이후 정치권이 연말 대권구도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여야 유력 대권후보들의 광주·전남 방문이 잇따라면서 대권 후보들의 지지모임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김지사가 직접 참여하는 조직은 머슬과 차지분권연대, 두드림 등이 아울러 지지모임으로 알려지고 있다.

28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난 4·11 총선 이후 정치권이 연말 대권구도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여야 유력 대권후보들의 지지모임은 최근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지사는 “여전히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 대권 후보 중 가장 오랫동안 광주·전남지역에 활동하고 있다. 김지사는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 대권 후보 중 가장 오랫동안 광주·전남지역에 활동하고 있다.”

김지사는 “여전히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 대권 후보 중 가장 오랫동안 광주·전남지역에 활동하고 있다.”

김지사는 “여전히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 대권 후보 중 가장 오랫동안 광주·전남지역에 활동하고 있다.”

김지사는 “여전히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 대권 후보 중 가장 오랫동안 광주·전남지역에 활동하고 있다.”

김지사는 “여전히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 대권 후보 중 가장 오랫동안 광주·전남지역에 활동하고 있다.”

김지사는 “여전히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 대권 후보 중 가장 오랫동안 광주·전남지역에 활동하고 있다.”

김지사는 “여전히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 대권 후보 중 가장 오랫동안 광주·전남지역에 활동하고 있다.”

김지사는 “여전히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 대권 후보 중 가장 오랫동안 광주·전남지역에 활동하고 있다.”

김지사는 “여전히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 대권 후보 중 가장 오랫동안 광주·전남지역에 활동하고 있다.”

김지사는 “여전히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 대권 후보 중 가장 오랫동안 광주·전남지역에 활동하고 있다.”

김지사는 “여전히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 대권 후보 중 가장 오랫동안 광주·전남지역에 활동하고 있다.”

김지사는 “여전히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 대권 후보 중 가장 오랫동안 광주·전남지역에 활동하고 있다.”

김지사는 “여전히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 대권 후보 중 가장 오랫동안 광주·전남지역에 활동하고 있다.”

김지사는 “여전히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 대권 후보 중 가장 오랫동안 광주·전남지역에 활동하고 있다.”

김지사는 “여전히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 대권 후보 중 가장 오랫동안 광주·전남지역에 활동하고 있다.”

김지사는 “여전히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 대권 후보 중 가장 오랫동안 광주·전남지역에 활동하고 있다.”

김지사는 “여전히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 대권 후보 중 가장 오랫동안 광주·전남지역에 활동하고 있다.”

김지사는 “여전히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 대권 후보 중 가장 오랫동안 광주·전남지역에 활동하고 있다.”

김지사는 “여전히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 대권 후보 중 가장 오랫동안 광주·전남지역에 활동하고 있다.”

김지사는 “여전히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 대권 후보 중 가장 오랫동안 광주·전남지역에 활동하고 있다.”

김지사는 “여전히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 대권 후보 중 가장 오랫동안 광주·전남지역에 활동하고 있다.”

김지사는 “여전히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 대권 후보 중 가장 오랫동안 광주·전남지역에 활동하고 있다.”

김지사는 “여전히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 대권 후보 중 가장 오랫동안 광주·전남지역에 활동하고 있다.”

김지사는 “여전히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 대권 후보 중 가장 오랫동안 광주·전남지역에 활동하고 있다.”

김지사는 “여전히 광주·